

소천국은 하상천주지국에서
 날 적에
 7는무들 존소남발 알로서
 탄생되였다.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7림질 알에서 탄생되였다.
 소천국대감님이
 천기를 둘러 볼 때에
 가난하고 선한하여
 살 수가 읍슬 때에
 “제주 영기가 제일 좋단”
 하여,
 제주도로 차자왔다.
 제주도를 오니
 하라영산을 올랐다.
 대강록, 소강록, 노리, 사슴,
 산뿔, 꿩, 궁작노리바께
 눈에 보이는 게 읍섰다.
 배는 고파지고 하니,
 앞바른 마세기총으로 마쳐,
 생식을 하여,
 대노리, 소노리, 대똥, 소똥을 먹어
 가죽옷을 입어 살아가니,
 옷통은 청달피
 알통은 흑달피
 소록비감티 소록비보선
 출리고
 항상 제주 십삼장엿
 중생을 먹고 살아.
 백주할마님은
 일곱슬 적이 애기를 배여.
 아방은 백정싱이고
 어명은 짐씨 부인이다.
 천왕공수 지왕공수 올라가
 삼년을 못한 내려올 적인.

풀애기는 불씨
일곱슬 적이
중이 애길 생겨부난
애길 배였는디,
백정싱과 짐씨부인이
내려와서
“양반의 집 못씨겠다.”고.
무쇠철갑을 출려
물에 띄와부니,
정이정당 열룬이로 올라오라.
소천국 대감님은
할로영산으로,
일수장을 내려오고 볼 때에
정이정당 열룬이
악근작지 한작지로
무쇠철갑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너가 귀신이나 생인이나?”
문조를 하고 보니,
무쇠철갑 쏘곶에서 소리가 나,
“내가 귀신이 이런 디 올 수가
있습네까 생인입네다.”
무쇠철갑을 올안 보니,
아들 애기 일곱을 난
곶딱흔 백주할망이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망 손을
심고,
“나광 곶이 살자.”하여,
손당으로 올라갔다.
어욱발, 맹개남발에
어욱광 맹개낭기 탕천하니,
애기들은 츠낭섞을 하여
덕겨주고
부인님은 애길 질루고.
소천국은 산쟁이질을 하였다.
산툃괴기 궁작노리를
잡아다가 애길 멕여 살리고,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광

배합되난,
뽕만 애길 으둡을 배였다.
이 애기를 낳아 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하되,
“우리가 이 애기를 키우쟁
하민, 산쟁이질론 못사니,
농소를 집시다.”
소천국은 용잠대, 용명애,
용가린석 출리고,
쇠는 금강산 웃학서 운철방이,
암쇠 솟쇠 둘을
제주산에 보내여 주난,
그 쇠를 질라서
아홉 해만에
쇠도 새끼 훈 해에 하나씩
아홉을 낳 놓아,
소천국대감님은
큰 쇠 부룽일 몰아가지고
하라영주산 앞이
갈만 훈 밧을 갈아,
지장씨 아홉말지기,
풋씨가 아홉말지기,
콩씨가 아홉말지기를 갈며는
백주할망이
들안 온 아들 으둡광
소천국대감님 몸에 난
뽕 으둡을
멕영 살릴 것이다.
소천국 대감님이
밭갈기를 권농해서 갈았다.
삼신산이 넘어가다가
소천국대감님 밭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
징심이나 흑곰 주시요,
시장이나 물령 갈쿠다.”
소천국대감이 말씀하되,
“질매 앞에 가고 봐라.

밥이 있다.”
소천국대감님은
밥이 예레듭동이
국이 예레듭동일 먹어야
식량이 차는 성인인데,
삼신산이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도합, 예레듭동일
다 먹어두고 갔다.
소천국대감님이 밧을 갈다가
시장이 되여,
밥을 먹고자 하니,
“삼신산이 혼동이나 먹을카?”
혼 게,
다 들러먹고 가부렸다.
아젠 밧갈단 농이를 잡아
새비냥게 불살란
구워 먹으난 양이 안찼다.
경혀여도 배가 고파.
감은암쇠 혼나를
다시 뱃겨 먹어사 양이 찼다.
쟁기를 쇠가죽으로 뒹여
뱃부기에 대연 밧을 갈암시난,
백주할망은
옥은 애긴 걸루고
두린 애긴 업고 안고
혼연 밧덜 오고 보니까,
소천국 대감님이
쇠가죽을 쳐매고
밧을 갈암시니,
“어찌해서 이렇게 밧을 갈네까?”
“그런게 아니고 속실이
이만흔고 저만흔여
나대로 밧을 간다.”
백주할망은 후욕을
소천국대감님께 혼여,
싸움이 되니,
살림이 분산된다.

백주할마님은 부회가 나니
북름목 웃손당데레 올라산다.
소천국대감님은 흘 수 엇이
알손당데레 내려산다.
소천국이 백주할망광
사념을 갈릴 적이,
오백장군 오백서 똥을
소첩을 삼아 살아간다.
백주할망은 웃손당서
고사리를 격그고
냥으름을 탕 먹으멍 살아가는디,
백주할망 일곱슬 적에
중의 몸에 낳은 으둑 아들
가운데
챗젯 아들을
공작의 도 선싱에게
글공비를 들어갔다.
하니,
이 애기 일름을 ‘송곡성’이라
지와,
글공빌 흐는디,
일곱슬 나난
“애비 엇는 호로즈석이라”
벗질에 또롬을 받았다.
송곡성인 어명신디 오라
“아방 간 딜 일러줍서” 하여,
오백장군 똥 소첩하여
살아가는 아방국
소천국을 찻사갔다.
송곡성?라
“저게 너의 아방이다.”
하니,
송곡성은 아방 독립에
펏작 돌아지여
안을 적에,
아바님 쉰대자 삼각수를
심어 등겼다.
석자두치 공방대도

이리저리 혼든다.
소천국은 생각할 때,
“이 조식도 불효조식이다.”
당장 죽일라고 헐다가
오백서 뜯애기 첩각시가
말을 헐되,
“죽이지 말고
앞서 보기 싫으니까
무쇠철갑을 해서
바당데레 강 드리쳐부는 게
좋쑤다.”
무쇠철갑을 헐여 들려,
그 쏘곶에 맞져
동해용궁에 띄웠다.
무쇠철갑은 요왕황제국일
들어갔다.
무낭 상가지에
무쇠철갑이 올랐다.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요왕이 말을 헐되,
“큰뜯애기가 나고 봐라.
뭇 펜식이 있느냐?”
“아무것도 엇습네다.”
“셋뜯애기가 나고 봐라.”
“아무것도 펜식이 엇습네다.”
“말쑥뜯애기가 가고 봐라,
뭇 펜식이 있느냐?”
“무낭 상가지에 난데 엇는
무쇠철갑이 올랐습네다.”
“큰뜯애기가 강 들러오라.”
“귀도 들썅힐 수가 엇습네다.”
“셋뜯애기가 강 안아오라.”
“귀도 들썅힐 수가 엇습네다.”
“말쑥뜯애기가 강 안아오라.”
용궁의 제삼공주가
그 무쇠철갑을
아방왕에 안아왔다.
용왕국이 말을 헐되,

“큰돌애기 올르보라.”
“올릴 수가 엇습네다.”
“셋돌애기 올르보라.”
“올릴 수가 엇습네다.”
“말젓돌애기 올르보라.”
말젓돌애긴 무쇠철갑 스방에
외무 느다 돌단
손으로
탁 외우 칠 적이
무쇠철갑이 질로 싱강
올르졌다.
옥곧은 도령님이
공주의 도 책자와 필먹,
수지를 안고 앓았다.
용왕국이 말을 헛되,
“어딜로 오는 도령이 되느냐?”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 온
도령뵈네다.”
“어딜 가는 질이냐?”
“강남천주국 적병 막으려
가는데, 풍우에 젖겨서
용왕국에 들어왔습네다.”
용왕국이 보니,
“천하맹장 곱은 인물이라.”
생각하고,
“큰돌애기 잘 대접혀라.”
도령님이 눈을 떠 브래지도
아넌다.
“셋돌애기가
그러면, 접혀라.”
눈도 안떠 브랜다.
“말젓돌애기가 접대혀여 봐라.”
“도령님, 방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제사, 서른오십 이빠디가
허우덩썩 웃이멍
스랑으로 들어간다.
용궁의 물젓돌애기가
토영칠반에 육산포록을

곶추와,
상을
눅는듯지 출리고
기는듯지 들러났다.
송곡성은 눈을 떠 안배린다.
“제주도에서 오신 맹장님은
음식이 좋나 눅지나
어째서 배린 채도 아녀십네까?”
송곡성이 말을 하되,
“나는 괴기라도 전머리,
독이라도 전머리,
쇠라도 전머리,
돛이라도 전머리,
눌피, 눌돛간, 응 전머리로,
거를 먹어야
내 양이 찬다.”
용궁의 말쑥뽕애기가
용왕 아방국에 들어가
이 연유를 슬랐다.
용왕국이 생각하되,
“사위 손 하나야
못대접 하느냐?”
하를에 돛도 전머리,
쇠도 전머리, 독도 전머리로
잡으니,
하로 일은다솟머릴 먹었다.
석들열흘을 맥여가난,
용왕국의 동창궐 서창궐
남창궐이 비여간다.
동·서·남·북창궐이 빌 적이,
“뽕은 출가외인인디
사위 손 하나로
용왕국이 망하게 내빌 순
엇다.”
사위 손광 말쑥뽕을
무쇠철갑 쏘굽에 들여놓완
용왕국 백궐딜로 내쳤다.
무쇠철갑은

강남천궐국으로 또 들어갔다.
백몰래 악근작지로
흔 곳을 들어갔다.
밤에는 불이
동서남북이 흰 하고,
낮이는 글소리가 웅웅 하고,
이럴 때에
천궐국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동네에는
“왕봉수가 점을 잘 친다.”
하여,
유신하를 불러서,
“왕봉수를 참내시겨라.”
하여,
천궐국이 말을 하되,
“어떤 일로
밤이는 갯갯 백몰래 곳으로
불이 흰 하고,
낮이는 글소리가 웅웅
들리느냐?
점을 지어보아라.”
왕봉수가 말을 하되,
“이건, 천하맹장님이
천궐국을 도우려 온 것
같습네다.”
“그러면, 천하맹장이면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문답할 때,
왕봉수가 재촉 말을 이르되,
“천하맹장이 되기 맘세
보통으로 민간 사름이
볼 수가 엇습네다.
천궐지국 대왕님이
갑옷 갑투길 궐추고
장검 비수검 출리고
일천백매가 가서 북향스배를
드림시민 알 도래가 있습네다.”

경하니,
천즈지국이 그영 다 출리고
간, 북향스배를 드리고,
“귀신이건 귀신대로,
생인이건 생인대로
말씀을 드리고,
눈 앞에 보여주십서.”
하니,
무쇠철갑이 눈을 흘었다.
옥같은 도령이
용왕국 말쑥뽕애기광 곱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온 맹장님이
되십네까?”
“천하해동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문곡성이 됩네다.”
송씨 성을 문씨로 씌건
곶았다.
천즈지국이 말을 하되,
“어째서 이 곳을 오랐읍네까?”
“천즈지국에 난이 나니,
적병을 막으랴고 오랐습네다.”
천즈지국이 문곡성광 손을
잡고 악수를 하였다.
천즈지국은 문곡성을
‘제일도원수’라는 직함을 지왔다.
갑옷, 갑투길 내여주고,
억만대병 억만군스를 내여줬다.
천즈지국의 난을
석돌열흘 백일만이
평정을 시켰다.
천즈지국이 말을 하되,
“천하를 반을 갈라주느냐?”
“것도 마오리다.”
“천금상에 만호를 주면
어찌 하냐?”
“것도 마오리다.”
“게멘, 소원이 뭇이냐?”

“나를 조선국 제주도로
보내여 주십시오.”
천주국은
황제혼언씨 수레를 지었다.
황제혼언씨가 수레를 지고
거기 굴랑을
일천석 궂추고
일천벙마 삼천군벙을
거느리고 제주를 입도했다.
소섬 동어귀로 들어올 때,
방포를 낚다.
굴왓칫똥애기가 나스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여가니,
안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왔다.
마침, 정이 고보임제가
땃줄을 꿋어왔다.
땃줄을 심어 올 때에
똥 전머릴 잡았다.
츄나룩떡, 백시리, 백돌래,
차귀 당산메를 지여서
접대를 하자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춤을 잘 추느냐?”
하여,
광선이를 불르고
옥단이를 불르고,
허무녀를 불르고,
방광을 쳤다.
배가 한곳을 잡히지 못했다.
청기, 적기, 백기, 흑기, 황기,
오색기를 내들리고,
“올라오십시오.”
하고, 절을 할 때에
한곳을 잡히게 되었다.
안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올 때에
소천국광 백주할망은
방포소릴 듣고,

정하님에게,
“이게 어떤 일이나?”
물을 때,
“소천국 아드님
일곱술 적이 귀양보낸 아들이
들어오십네다.
하니,
“왜, 일곱술 적이
무쇠철갑에 담아
물에 킁진 죽이
살아 올 리가 있겠느냐?”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하라영산을 올랐다.
이 때에 어명은 겁난
웃손당으로 돌아나불고
아방은 알손당 고부니뎡물로
돌아나불고.
둘쨌 동상은
삼방산으로 돌아나
삼방산신이 되었다.
셋쨌 동상은
대정 광정당 북름목
산신이 되었다.
늑체는 제주시내 북름목
내왓당 산신이 되었다.
다섯체는 짐녕 괴뇌깃또
산신이다.
옷쨌체는 거루 명당또
산신이다.
일곱체는 조천면 두리 송당
산신이다.
옷뎡체는 토산당 북름목
산신위를 받았다.
송씨부인 중몸에
배연 오단 난 똥
옷뎡성젠
소천국몸에 난 아들광

서로 배합이 되어,
 버금 낱은
 아들조손 일은으뜸은
 각서본향으로 배치시켜 버렸다.
 억만대병들은
 별방 상코지로 환고향 시켰다.
 용궁 말쑥돌애기광
 문곡성 위는
 하라영산 북름목 앓아서
 알 동심들?라
 “내가 여기로 앓아시니
 너이들,
 나를 우망이나 헉여라.”
 알 동심들은 문곡성?라
 “게니 뭇을 좋아헉십네까?”
 헉니.
 “뚝이 전머리나, 쇠 전머리나,
 독이라도 전머리,
 온갖 바릇괴기라도 전머리로,
 머리 곳인 제숙으로
 나를 우망헉여라,
 또, 백시리, 배돌래,
 차귀 당산메,
 온갖 실과를 즐겨한다.
 경헉민
 내가 잘 너의들 효심을 봐서
 만민조손을 그늘라 준다.
 나를 너의들이 박접헉민
 삼년에 한번,
 칠년에 한번이라도
 풍문조화를 줄 것이다.
 정월 축일로 나를 우망헉라.”

제일 1월 축일.

<애월면 광지리 남무 48세 이상문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08-415.